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전후 일본 신문의 재일한인 미디어 표상

- 일본 3대 신문을 중심으로 -

정영미*
yomjung@de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 생산추이 |
| 2.1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 | 4.2 출현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 |
| 2.2 재일한인 표상에 대한 논의 |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 4.4 키워드 군집화 분석 결과 |
| | 5. 결론 |

主題語: 재일한인(Zainichi Koreans),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의제설정이론 (agenda-setting theory), 재일조선인(zainichi), 미디어 표상(media representation)

1. 서론

올드커머(old comer, 구(舊)정주자)라 불리는 재일한인¹⁾ 사회 구성원의 다수는 일제강점기 후반에 강행된 대규모 강제 이주와 일본의 패전 이후 이들이 일본에 그대로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일제강점기 시기 이전이나 직전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이동을 포함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경제활동, 유학 등 다변화된 원인에 의한 이주와 정주가 뉴커머(new comer, 신(新)정주자) 사회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 사회의 다수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일본내의 시각에서 재일한인은 식민지국가의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1)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재일한인’ 이외에도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아인’, ‘자이니치’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대표 용어로 ‘재일한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毎日新聞 1959년 9월 12일자 기사에서도 『対韓国・北朝鮮関係：在日朝鮮人の呼称は「在日韓人」に』라는 제목으로 ‘재일조선인’ 호칭을 ‘재일한인’으로 표기한다고 공표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로 ‘재일한인’을 사용하기로 한다.

국민이며, 한때 제국주의 국가였었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이자 패전의 결과를 반추할 수 있는 씁쓸한 과거가 될 수 있다. 패전 이후 70여 년 동안 일본내에 형성된 재일한인의 이미지와 인식은 어떠한가? 오늘날 재일한인에 대한 표상은 최근의 경제적, 정치적 한·일 관계, 문화 교류,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재일한인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패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다양한 표상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McCombs & Shaw (1972)²⁾에 의해 제창된 대중매체(media: 이후 ‘미디어’라 표현한다)의 ‘의제설정기능’(agenda setting theory)에 집중하여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내 이미지와 인식 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대중들의 머릿속에 표상(pictures in our heads)을 형성할 수 있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미디어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통해 현실을 여과하고 일정 부분 제작한다. 그렇다면 전후 일본 사회의 미디어가 재일한인과 관련된 이슈를 어떤 태도로 보도하고 있는가는 오늘날의 재일한인 표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다가갈 수 있다. 뉴미디어의 확산 시기 이전에 인쇄된 미디어인 신문은 미디어 표상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신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막강하다.³⁾

일본의 패전 이후 형성된 재일한인 사회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정세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을 생산해왔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일본의 미디어, 특히 신문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해왔다. 보도 비중이나 노출 빈도도 중요하지만, 미디어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여 사실을 보도해왔는가는 재일한인에 대한 오래된 표상과 인식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3대 신문(2019 발행 부수량 기준)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그리고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을 대상으로 전후(1945년 8월 15일~1989년 12월 31일) 재일한인 관련 신문 기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그들의 보도 속성과 방향성을 기술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내 주요 신문에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재일한인 관련 주제를 살펴보고 키워드의 동시출현정보 및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을 활용하여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인 미디어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를 파악하고자

2) McCombs, Maxwell E. & Shaw, Donald L.(1972)「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The Public Opinion Quarterly』Vol.36 No.2, pp.176-187

3) 한국기자협회(2018년 9월 4일)「세계 부수 10위 중 4곳이 일본신문...포털엔 기사 하루 5개만 전송」,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801>> [인용 2020.8.20.]

하였다. 그리고 군집화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의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을 도출하고 3개의 신문에서 의제 설정한 이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이슈의 전이와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

대중 미디어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다. 1972년 McCombs와 Shaw(1972)⁴⁾의 ‘의제설정 효과’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 의제설정이론을 둘러싼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인식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 연구 수준을 벗어나, 행태(attitude)와 행동(behavior)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 연구로 그 틀을 확장해 왔다.⁵⁾ 이론은 주제적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의제설정이론의 다양한 전개 중 중요한 하나는 2차 의제설정 효과(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1차 의제설정 효과’라고 한다)이 대중들의 주목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즉 대중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what people are thinking about)에 관한 것이라면, 2차 의제설정 효과는 대중이 뉴스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how people think about persons and topics in the news)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McCombs et al. 1997)⁶⁾.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이슈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제의 속성(attribute)이 대중의 의제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속성은 한 개체의 두드러진 성격이다. 2차 의제설정 효과는 미디어가 어떤 개체를 보도할 때 그 개체의 일부 특성을 두드러지게 묘사하면 독자들은 결국 그 개체를 생각할 때 그 특징들을 중요하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⁷⁾ 미디어의 의제는 이슈나 대상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제공하며, 관점에 의해 대상

4) McCombs, Maxwell E. & Shaw, Donald L.(1972), 앞의 논문, pp.176-187

5) 이건호·유찬윤·맥스웰 맥콕스(2007)「환경 문제의 2차 의제설정 효과: 지구 온난화 이슈 내 서로 다른 속성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회』제51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p.155

6) McCombs, Maxwell et al.(1997)「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J&MC Quarterly』 Vol.74 No.4, pp.703-717

7) 이건호(2006)「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접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의 특정한 속성은 가감된다. 즉 미디어에서 현저화된 속성은 결국 대중에게 전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

2차 의제설정(agenda setting)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속성(cognitive attribute)과 정서적 속성(affective attribute)으로 구분된다.⁸⁾ 인지적 속성은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대중들이 인식적으로 구성하게 만들고 정서적 속성은 대중에게 특정 이슈나 대상에 대한 감성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1차 의제설정 효과와 함께 2차 의제설정 효과에 대한 검증 차원의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정치인,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연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반현, 최원석, 신성혜(2004)⁹⁾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언론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 보도에 나타난 속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러한 언론의 의미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근호, 유찬윤, 맥스웰 맥콕스(2007)은 지구 온난화 이슈를 환경 보존의 속성과 경제 발전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신문을 통해 실험하고 그 결과 인지적 속성과 비교하여 정서적 속성 현저성 전이에 더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¹⁰⁾ 그리고 이현숙과 반현(2008)은 황우석 박사 사건을 중심으로 뉴스 미디어가 구성한 이슈와 속성 현저성이 대중의 지각과 행동에 미치는 단계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인지적 속성보다 정서적 속성이 이슈의 현저성을 검증한 부차적 효과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¹¹⁾

본 연구의 주제를 의제설정이론에 적용하면, 일본 사회의 비중 있는 미디어에서 재일한인에 관한 이슈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 강조된 이슈는 일본 사회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미디어에서 재일한인과 관련된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는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일본 사회)들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재일한인에 대한 신문기사의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후 일본 사회의 대표적인 미디어인 신문기사는 의제설정 효과가 있다는 이 분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전제로 시작한다. 즉 재일한인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한 의제설정은 오랜 시간 동안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언론학회』제50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p.369

8) Ghanem, S.(1997)「Filling in the Tapestry :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In M. McCombs, D. Shaw & D.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 Setting The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3-14

9) 반현·최원석·신성혜(2004)「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한국언론정보학회』통권 2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p.65-102

10) 이근호·유찬윤·맥스웰 맥콕스(2007)「앞의 논문」, pp.153-179

11) 이현숙·반현(2008)「방송뉴스의 의제설정 효과 연구: 황우석 사건에 관한 공중 의견과 행동을 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pp.253-275

속성을 일본 사회에 전이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제목이나 부제목에서 ‘재일한인’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자주 나타난 키워드를 고찰하는 것으로 의제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재일한인 표상에 대한 논의

‘재일한인’은 일본 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특히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바와 의하면 재일한인의 개념으로 ‘재일조선인’은 전후 직후부터 현재까지 가장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반면, ‘재일한인’은 ‘재일조선인’을 대신할 공식용어로 사용한다고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¹²⁾ ‘재일한국인’은 199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재일코리안’이 거의 이 개념을 대체한 용어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면, ‘재일코리안’은 민간 영역의 이슈에서 주로 사용되었다.¹³⁾ 물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재일한인’을 ‘재일교포’, 또는 ‘재일동포’로 지칭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모든 개념을 포괄하여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정한 대상이 사회구조적으로 표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의제설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디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동시에 특정 대상에 대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영향을 미친다. 신문 기사 분석을 활용한 특정 대상에 대한 표상을 연구한 이 분야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선윤(2015)¹⁴⁾은 1880년 전후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왜관 및 재조일본인에 대한 표상을 연구하였고 김여진(2020)¹⁵⁾은 일본어 신문미디어를 대상으로 1919년 3·1운동 전후 조선(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과 그 주요한 표현인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재일한인 표상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을 연구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 중 대부분은 특정한 문학 작품과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재일한인에 대한

12) 毎日新聞(1959년 9월 12일)『対韓国・北朝鮮関係：在日朝鮮人の呼称は「在日韓人」に』
 13) 현영미·정영미(2019)「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재일한인’ 관련 의미 분석 -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9회 국제학술대회』한국일본근대학회
 14) 이선윤(2015)「1800년 전후 일본 소신문에 나타난 왜관 및 재조일본인에 대한 표상-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54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9-248
 15) 김여진(2020)「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일본어 신문미디어를 중심으로」『일본연구』제34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p.143-178

내용 및 캐릭터 분석에 관한 것이다(김강원 2018¹⁶); 이승진 2016¹⁷); 오테영 2016¹⁸) 등). 이들 연구는 미디어 영향력까지는 전개되지 않았다.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를 기반한 재일한인 표상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범수(2017)¹⁹)는 국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통해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이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의 한국사회 신문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논문은 3개의 신문에서 재일교포에 대해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조국의 경제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등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Others)로 표상되는 것과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주로 기사 중에서도 필자의 의견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설, 칼럼/논단, 기획/연재, 가십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정영미(2018)²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아사히신문에서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발행 주제와 동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검색 키워드인 재일한인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고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로 ‘문제’가 도출되어, 일본 대중에게 재일한인은 문제라는 속성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의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하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ヲミダス歴史館(読売新聞), 聞蔵II ビジュアル(朝日新聞), 그리고 毎索(毎日新聞, 毎日Newsパックの後継版)을 활용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
- 16) 김강원(2018)「일본영화에서의 재일조선인 캐릭터와 내러티브 분석」『다문화콘텐츠연구』제28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pp.131-170
 - 17) 이승진(2016)「현대 일본 대중문화에 재현된 ‘재일남성상’ 고찰」『日本學(일본학)』제43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73-297
 - 18) 오테영(2016)「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정체성과 사회적 상상-김명준 감독, 영화 <우리학교>2006>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제67권, 동악어문학회, pp.239-274
 - 19) 김범수(2017)「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일본비평』제1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284-331
 - 20) 정영미(201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전후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주제와 동향에 관한 연구」『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제8권 제11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p.1-9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재일한인’을 비롯하여 앞서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동의어 및 유사어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자이니치’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고, 검색결과 레코드를 병합한 후 중복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추가로 3종의 데이터베이스 모두, 기사 제목에 관련 용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재일조선인’을 주제색인어로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관련 기사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컬렉션화되어 있었다. 수집된 검색결과 총합은 이러한 컬렉션 내의 기사 목록과도 비교하여 재일한인 관련 기사 누락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는 3종 신문을 합하여 총 4,273건이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5년 주기별 생산량과 핵심키워드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생산량은 관련 주제의 노출빈도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가 있다.

핵심키워드는 수집된 신문기사의 제목 및 부제목에서 포함하고 있는 단어 중 자주 출현한 키워드이다. 신문기사의 제목 및 부제목은 본문 내용을 함축 요약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기사의 뉴스 가치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²¹⁾ 많은 경우 독자들은 신문기사의 제목만 보고 지나치거나, 제목을 통해 열독할 기사를 선택한다. 즉, 신문기사의 의제설정 효과는 본문의 내용보다 제목 및 부제목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강조된 키워드가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신문기사의 제목 및 부제목에 등장하는 핵심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국문으로 번역한 뒤 KtKwic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였다. 키워드 사용의 고유한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용어 통제는 최소한으로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추출된 키워드 중 ‘조선인총연합회’와 ‘조총련’, ‘재일본조선거류민단’, ‘거류민단’, 그리고 ‘민단’과 같은 단체명이나 고유한 사건명, 복합명사의 띄어쓰기 등이 용어 통제의 대상이다.

이후 추출된 핵심키워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키워드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래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 조직, 사물 등 분석 객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사람과 사람의 친구 관계를 만남이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텍스트에서의 의미를 지닌 키워드 간의 관계는 한 문장 혹은 문단 등 분석 단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²²⁾ 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단순한 키워드의 출현빈도에 의한 중요도가

21) 유흥식(2009)「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회』 제53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p.178

22) 김용학(2011)『제3판 사회연결망분석』박영사, p.317

아니라 키워드 간의 관계성에 의미를 두어 재일한인과 관련하여 어떤 키워드가 가장 큰 중심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들에 나타난 핵심키워드 간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한 주제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문기사들이 당대의 이슈에 관한 것이므로 최초 5년을 제외하고 10년 주기별로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UCINET 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분석의 대표적인 개념만 정리하면, 그것은 연결망 결속에 관한 것으로 연결정도, 밀도가 있다.²³⁾ 연결정도(degree)는 한 객체가 맺고 있는 다른 객체의 숫자를 의미하고,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총 관계의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을 뜻한다. 네트워크는 연결정도가 높은 노드를 많이 포함할수록,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결속력이 강한 조밀한 네트워크가 된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개념으로는 중앙성(centrality)이 있다. 이것은 키워드가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에서 그 키워드의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 위세 지수 등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객체(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와 연결되어있는지, 또는 하나의 객체가 다른 모든 객체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나 필요한지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²⁴⁾ 본 논문에서는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만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연결된 키워드의 수를 통해 중앙성을 파악하는 개념이다.

4. 분석 결과

4.1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 생산추이

3종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1945년 8월 15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재일한인 관련 기사는 총 4,273건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에서는 가장 많은 3,154건, 아사히는 690건, 마이니치는 429건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를 생산하였다. <표1>과 같이 요미우리는 1955.1.1.~1959.12.31.에 가장 많은 930건의 기사를 생산하였고, 반면 아사히는 1970.1.1.~1974.12.31.에 291건, 마이니치는 1975.1.1.~1979.12.31.에 108건의 관련 기사를 생산한 것으로

23) 『위의 책』,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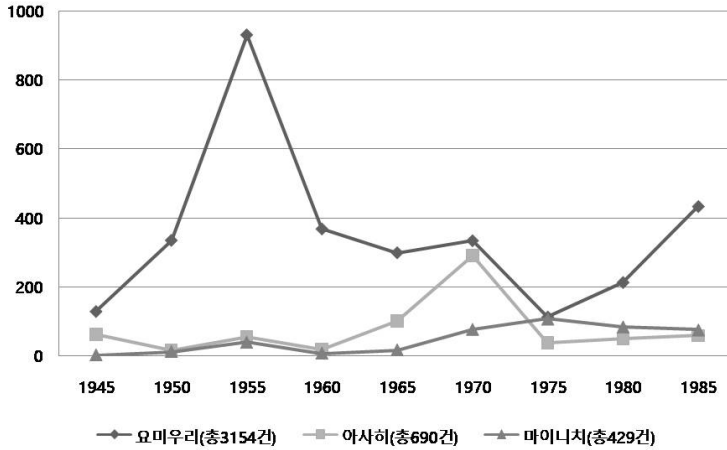
24) 『위의 책』, pp.67-70

나타나 재일한인에 대해 의제설정 시기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의 보도량은 특정 사건을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로 전통적인 의제설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재일한인을 둘러싼 동시대의 현상이나 사건은 같지만, 신문마다 할당하고 있는 비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 생산추이(5년 주기별)

발행일 \ 신문사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총 계
1945.8.15.-1949.12.31.	129	62	3	194
1950.1.1.-1954.12.31.	335	16	13	364
1955.1.1.-1959.12.31.	930	55	40	1,025
1960.1.1.-1964.12.31.	368	19	8	395
1965.1.1.-1969.12.31.	299	101	18	418
1970.1.1.-1974.12.31	334	291	78	703
1975.1.1.-1979.12.31	113	38	108	259
1980.1.1.-1984.12.31	213	49	85	347
1985.1.1.-1989.12.31	433	59	76	568
총 계	3,154	690	429	4,273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생산추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가장 많은 기사가 생산된 시기의 주요한 사건과 해당 시기의 가장 많은 기사 건수를 생산한 단일 사건을 살펴보면, 요미우리는 1955년~1960년에 재일동포 북송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였고, 아사히는 1970년~1975년 사이에 재일한인 국적서환(国籍書換) 문제 및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였다. 요미우리나 마이니치에서도 이 문제는 꽤 비중을 두어 보도하였지만 신문의 다른 사건의 보도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마이니치의 경우는 1985년~1990년 사이에 재일한인 정치범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였다. 즉 아사히의 경우에는 재일한인 단체나 재일한인 개인과 사회에 일어난 문제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고 마이니치의 경우에는 재일한인이 관련된 정치, 행정,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신문사별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 생산추이

4.2 출현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

수집된 신문기사의 제목 및 부제목을 대상으로 KIKwic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요미우리는 중복을 제외하고 총 7,903개 아사히는 2,445개, 그리고 마이니치는 총 1,653개의 키워드를 기사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핵심키워드 Top10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Top10 핵심키워드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기사건수(키워드수)	3,154(7,903)		690(2,445)		429(1,653)	
Top10 핵심키워드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655	북한	308	문제	205	재일한국인
	609	귀환	294	재일조선인	129	재일조선인
	285	회담	202	북한	116	한국
	263	한국	146	조총련	79	외교
	254	일본	104	조선인	65	정치
	209	문제	93	재일동포	47	재판
	173	한일	87	한국	45	일한관계
	126	적십자사	84	국적서환	30	사법
	117	재일조선인	84	귀환	30	정치법
115	도쿄	78	한일	27	법무성	

요미우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Top3 핵심키워드는 ‘북한’, ‘귀환’, ‘회담’이고, 아사히는 ‘문제’, ‘재일조선인’, ‘북한’, 반면 마이니치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한국’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신문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난 핵심키워드를 제외하면, 요미우리는 ‘회담’, ‘일본’, ‘적십자사’, ‘도쿄’가, 아사히는 ‘조총련’, ‘조선인’, ‘재일동포’, ‘국적서환’이, 마이니치는 ‘재일한국인’, ‘외교’, ‘정치’, ‘재판’, ‘일한관계’, ‘재판’, ‘사법’, ‘정치법’, ‘법무상’을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랭킹 핵심키워드를 통해 각 신문에서 비중을 두고 보도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고 동시에 신문 간 의제로 삼고 있는 사건들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시대별 세분화된 의제설정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10년 주기별로 출현빈도 Top5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전후 직전부터 1950년까지는 3종의 신문 모두 재일한인 관련 단체들의 생성과 활동에 적지 않은 기사들이 할애되었고 1950년대에는 북선귀환 문제와 한일회담(신문에서는 일한회담으로 표현됨)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의 보도량에 따른 신문의 상대적인 보도 비중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요미우리는 북선귀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많은 분량의 보도를 통해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재일한인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세 개의 신문에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키워드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3>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Top5 핵심키워드(10년 주기별)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기사건수(키워드수)	130(576)		62(225)		3(23)	
1945.8.15.-1949.12.31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25	사건	35	조선인	2	재일조선인
	20	조선	33	문제	1	조련
	19	조련	32	단체	1	민족대회
	11	대회	31	해산	1	인민대회
	10	조선인	29	네	1	노동자 등
기사건수(키워드수)	1265(3647)		71(253)		53(244)	
1950.1.1.-1959.12.31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396	귀환	38	재일조선인	37	재일조선인
	370	북한	35	문제	25	외교
	208	문제	30	북선귀환	20	북선귀환
	140	일본	9	한국	15	일한회담
	133	회담	7	재일동포	12	문제

기사건수(키워드수)	667(1987)		120(444)		26(130)	
1960.1.1.-1969.12.31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216	귀환	48	북한	14	재일한국인
	202	북한	17	문제	11	재일조선인
	113	회담	14	재일조선인	6	대한관계
	62	니가타	11	재일동포	6	한국
	61	협정	10	한국	4	행정
기사건수(키워드수)	447(2007)		329(1,364)		186(741)	
1970.1.1.-1979.12.31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63	북한	75	재일조선인	92	재일한국인
	42	재입국	63	문제	79	한국
	42	한국	55	조총련	59	정치
	39	재일조선인	45	북한	52	외교
	34	국적	42	국적서환	52	재일조선인
기사건수(키워드수)	646(2648)		108(949)		161(955)	
1980.1.1.-1989.12.31	NR	Keyword	NR	Keyword	NR	Keyword
	112	지문	162	재일조선인	81	재일한국인
	99	날인	160	문제	35	재판
	76	한국	109	북한	28	한국
	52	한일	82	조총련	27	재일조선인
	50	거부	56	재일동포	18	사법

요미우리와 아사히는 여전히 북선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생산했던 반면, 마이니치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3종 신문의 핵심키워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재일한인의 국적서환 및 영주권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이니치는 한국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사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한일 외교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1980년대에 요미우리는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지문날인 거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고, 아사히는 북한, 조총련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고, 마지막으로 마이니치는 재일한인 정치범과 이와 관련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자주 보도하였다. 즉, 신문마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사건과 의제설정의 방향성에 꽤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신문별 상위 출현 키워드 30개를 추출하여 동시출현정보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미우리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 네트워크는 <표4>와 같이, 밀도는 0.065, 연결 수 708회의 네트워크로 표현된다(네트워크 그림은 편의상 degree>5만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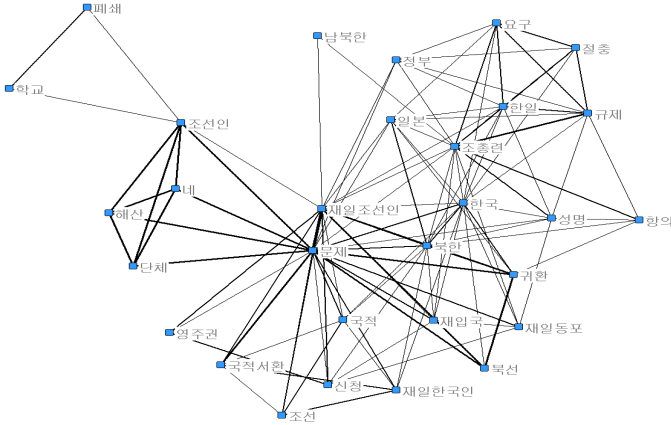
<표4> 요미우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출현빈도 30회 이상, degree>5)		연결중심성 Top10	
	1	귀환, 북한	
	2		
	3	회담, 문제	
	4		
	5	일본, 한국	
	6		
	7	협정	
	8	적십자	
	9	적십자사	
	10	대표	
네트워크 밀도(총연결수)		0.065(708tics)	

연결중심성은 ‘귀환’과 ‘북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담’, ‘문제’, ‘일본’, ‘한국’, ‘협정’, ‘적십자’, ‘적십자사’, ‘대표’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키워드의 출현빈도로 살펴보았을 때와 비교하여 ‘문제’, ‘협정’, ‘적십자’, ‘대표’는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반면 ‘한일’, ‘재일조선인’, ‘도쿄’는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연결중심성이 약한 키워드로 나타나 연결중심성 Top10 키워드에서 보이지 않았다.

아사히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 네트워크는 <표 5>와 같이, 밀도는 0.148, 연결 수는 224회의 요미우리와 비교해서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은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일조선인’, ‘한국’, ‘조총련’, ‘북한’, ‘한일’, ‘규제’, ‘일본’, ‘성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열 번째로 ‘조선인’, ‘요구’, ‘정부’, ‘귀환’, ‘국적’, ‘재입국’이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키워드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한국’, ‘규제’, ‘일본’, ‘요구’, ‘정부’, ‘재입국’이 연결중심성이 강한 단어로 나타났다.

<표5> 아사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출현빈도 30회 이상, degree>5)		연결중심성 Top10	
	1	문제	
	2	재일조선인	
	3	한국	
	4	조총련	
	5	북한	
	6	한일, 규제	
	7		
	8	일본	
	9	성명	
	10	조선인, 요구, 정부, 귀환, 국적, 재입국	
네트워크 밀도(총연결수)		0.148(224ties)	

마이니치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 네트워크는 <표6>과 같이, 밀도는 0.188, 연결 수 340회의 네트워크로 표현된다(네트워크 그림은 편의상 degree>5만 표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재일 한국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일조선인’, ‘한국’, ‘외교’, ‘정치’, ‘재판’, ‘지방’, ‘사법’, ‘항의’, ‘일한관계’, ‘스파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키워드의 출현빈도로 살펴보았을 때와 비교하여 ‘지방’, ‘항의’, ‘스파이’는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반면 ‘정치법’, ‘법무성’은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연결중심성이 약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6> 마이니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출현빈도 30회 이상, degree>5)	연결중심성 Top10	
	1	재일한국인
	2	재일조선인
	3	한국
	4	외교
	5	정치, 재판
	6	
	7	지방, 사법
	8	
	9	항의, 일한관계, 스파이
	10	
네트워크 밀도(총연결수)	0.188(340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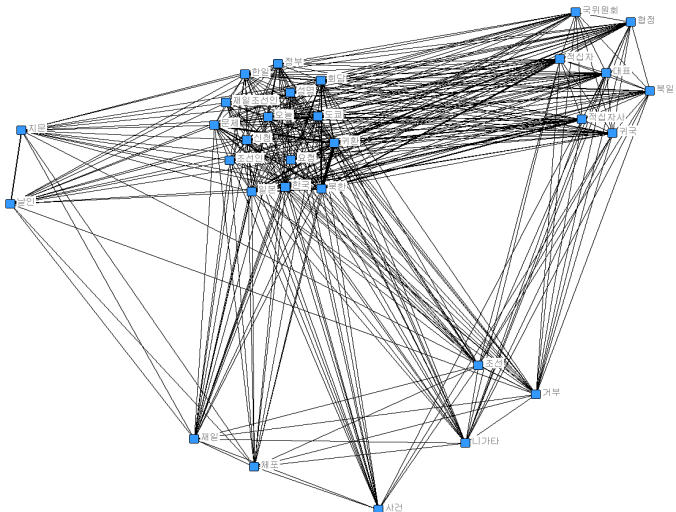
3종 신문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귀환’, ‘북한’이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였고, 아사히는 ‘문제’가, 마이니치는 ‘재일한국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Top10의 키워드 중에서 2종 이상의 신문에서 중복적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요미우리는 ‘회담’, ‘협정’, ‘적십자’, ‘적십자사’, ‘대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나 북한 귀환 문제와 이에 관련한 북일 회담과 당시 중재 역할을 수행했던 적십자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사히는 조총련 규제, 재일한인 국적 문제, 재입국 허가, 네 개의 조선인 단체 해체와 같이 재일한인 지위와 관련된 신문기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한일회담과 관련된 외교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과 달리 재일한인 정치범의 재판과 사법부의 결정에 상당히 많은 기사를 할애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을 비교해보면 기사 건수로 인해 요미우리가 절대적인 키워드 간 연결 수는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의 밀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신문과 비교하여 재일한인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키워드 군집화 분석 결과

각 신문의 핵심키워드 동시출현정보를 활용하여 연결 관계에서 유사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군집화(clustering, 클러스터링)하였다. 여기에서 클러스터(cluster)는 유사성을 지니는 키워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²⁵⁾ 먼저 요미우리 키워드의 군집화 결과를 표현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가장 많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A 클러스터는 북한 귀환과 관련하여 정부 회답, 성명, 신청, 요청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B 클러스터는 적십자사, 협정, 귀국과 관련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C 클러스터는 니가타, 거부, 조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D 클러스터는 지문, 날인, E 클러스터는 재일, 체포, F 클러스터는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다.

<표7> 요미우리 키워드의 군집화 분석 결과

군집화 분석(출현빈도 30회 이상)	클러스터
	A 귀환, 북한, 정부, 회답, 한일, 성명, 재일조선인, 오늘, 문제, 신청, 조선인, 요청, 한국, 일본, 도쿄
	B 협정, 적십자, 대표, 북일, 적십자사, 귀국, 귀국위원회
	C 조선, 거부, 니가타
	D 지문, 날인
	E 재일, 체포
	F 사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A 클러스터는 문제, 재일조선인, 성명, 조총련, 정부, 요구, 북한, 한일, 한국, 일본, 규제, 절충 등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재일조선인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각 정부의 성명이나 정부의 절충 활동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클러스터는 학교, 네, 조선인, 단체, 해산, 폐쇄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조선인 학교 폐쇄나

25) 이수상(2012)『네트워크 분석 방법론』논형, p.311

네 개의 조선인 단체 해산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클러스터는 재일동포, 영주권, 향의, 신청, 재입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D 클러스터는 국적서환, 조선, 재일한국인, 국적, E 클러스터는 북선, 귀환, F 클러스터는 남북한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다.

<표8> 아사히 키워드의 군집화 분석 결과

군집화 분석(출현빈도 30회 이상)		클러스터	
	A	문제, 재일조선인, 성명, 조총련, 정부, 요구, 북한, 한일, 한국, 일본, 규제, 절충	
	B	학교, 네, 조선인, 단체, 해산, 폐쇄	
	C	재일동포, 영주권, 향의, 신청, 재입국	
	D	국적서환, 조선, 재일한국인, 국적	
	E	북선, 귀환	
	F	남북한	

마이니치의 재일한인 관련 기사 키워드를 군집화해보면 다음의 <표9>와 같다. 가장 많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A 클러스터는 재판, 한국, 재일한국인, 지방, 사법, 판결, 일한관계, 정치, 재판소, 소송, 외교, 스파이 등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재일한국인과 관련한 재판, 정치 외교적 문제에 관한 키워드간 연결 관계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클러스터는 집회, 석방, 향의, 정치범, 움직임, 데모, 교육, 김대중사건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정치범 석방과 관련하여 향의나 데모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클러스터는 일한회담, 일한문제, 문제, 북조선, 북선귀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D 클러스터는 법무성, 체포, 내각, E 클러스터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종의 신문에서 재일한인 귀환 문제를 다루는 클러스터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귀환 문제를 기사로 생산함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사용한 키워드의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요미우리의 경우는 관련 기사를 위해 ‘협정’과 ‘적십자’와 같은 키워드를 자주 사용했다면 나머지 두 신문은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단과 조총련의 갈등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아사히의 경우에도 귀환 제일한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나 민단의 반대집회 등에 많은 기사를 할애하고 있다.

<표9> 마이니치 키워드의 군집화 분석 결과

군집화 분석(출현빈도 30회 이상)	클러스터	
	A	재판, 한국, 재일한 국인, 지방, 사법, 판 결, 일한관계, 정치, 재판소, 소송, 외교, 스파이
	B	집회, 석방, 항의, 정 치범, 움직임, 데모, 교육, 김대중사건
	C	일한회담, 일한문제, 문제, 북조선, 북선귀 환
	D	법무성, 체포, 내각
	E	재일조선인

5. 결론

본 연구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3대 신문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의 전후 재일한인에 대한 미디어 표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3대 신문의 1945년 8월 15일~1989년 12월 31일에 생산한 재일한인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주요 의제설정과 사용 키워드 분석, 군집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요미우리는 다른 신문과 비교하여 북선 귀환 사건을 심도있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모든 신문에서 이 사건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였지만, 요미우리의 관련 기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탁월하게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문 날인 거부 활동에 관해서도 비교적 기사의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었다. 3종의 신문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아사히는 다른 신문과 비교하여 조선인 학교 폐쇄 및 재일한인 관련 네 단체의 해체

명령에 관한 기사를 보다 심도 있게 보도하였다. 또한 재일한인의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재일한인 및 단체의 지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이니치는 유독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기사에서 재일한국인의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였고 북한이 아닌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범 재판, 김대중사건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생산하였다.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3종의 신문 모두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던 복선 귀환 문제에 대해 의제설정 속성 또한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미우리는 ‘협정’이나 ‘적십자’ 키워드를 제목에 많이 노출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집중한 반면, 아사히나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의 반대 집회나 이를 통한 조총련과 민단의 갈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동시대의 실제 현상은 하나지만 신문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보도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향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내 전후 신문은 재일한인 관련 기사를 통해 현저화하고 있는 의제가 상당히 다르고 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본내 미디어의 보도는 오늘날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의제설정 및 일본내 재일한인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논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후 시기 일본내 주요 신문의 재일한인 관련 의제설정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제시한 그림을 기반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이 질적 접근 및 깊이 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 오늘날 일본내에서 재일한인에 대한 표상에 미디어가 미친 의제설정 효과를 살펴보길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권현범(2016)「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한 교육의 의미와 연구 영역 탐색」『교육혁신연구』제26권 제1호,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김강원(2018)「일본영화에서의 재일조선인 캐릭터와 내러티브 분석」『다문화콘텐츠연구』제28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김범수(2017)「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일본비평』제1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김여진(2020)「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일본어 신문미디어를 중심으로」『일본연구』제34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용학(2011)『제3판 사회연결망분석』박영사, p.317

반현·최원석·신성혜(2004)「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2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서봉언·이채문(2014)「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동향」『디아스포라연구』제8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 소명선 외(2018)『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오태영(2016)「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정체성과 사회적 상상-김명준 감독, 영화 <우리학교>(2006)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제67권, 동악어문학회
- 유홍식(2009)「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회』제53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 이건호(2006)「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접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언론학회』제50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 이건호·유찬윤·맥스웰 맥콤스(2007)「환경 문제의 2차 의제설정 효과: 지구 온난화 이슈 내 서로 다른 속성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회』제51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 이선윤(2015)「1800년 전후 일본 소신문에 나타난 왜관 및 재조일본인에 대한 표상-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54호, 동아시아일본학회
- 이수상(2012)『네트워크 분석 방법론』논형
- 이승진(2016)「현대 일본 대중문화에 재현된 ‘재일남성상’ 고찰」『日本學(일본학)』제43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이현숙·반현(2008)「방송뉴스의 의제설정 효과 연구: 황우석 사건에 관한 공중 의견과 행동을 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 정영미(201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전후 재일한인 관련 신문기사의 주제와 동향에 관한 연구」『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제8권 제11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정영미·이경규(201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일본근대학연구』제5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한국기자협회(2018년 9월 4일)「세계 부수 10위 중 4곳이 일본신문...포털엔 기사 하루 5개만 전송,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801>> [인용 2020.8.20.]
- 현영미·정영미(2019)「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재일한인’관련 의미 분석 -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제39회 국제학술대회』한국일본근대학회
- 毎日新聞(1959년 9월 12일)『対韓国・北朝鮮關係：在日朝鮮人の呼称は「在日韓人」に』
- Ghanem, S.(1997)「Filling in the Tapestry :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In M. McCombs, D. Shaw & D.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 Setting The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3~14
- McCombs, Maxwell E. & Shaw, Donald L.(1972)「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The Public Opinion Quarterly』Vol.36 No.2, pp.176-187
- McCombs, Maxwell et al.(1997)「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J&MC Quarterly』 Vol.74 No.4, pp.703-717

논문투고일 : 2020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0년 10월 19일
 1차 수정일 : 2020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20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7일

<要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전후 일본 신문의 재일한인 미디어 표상

- 일본 3대 신문을 중심으로 -

정영미

본 연구는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3대 신문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의 전후 재일한인에 대한 미디어 표상을 살펴보고자 1945년 8월 15일~1989년 12월 31일에 생산된 재일한인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해 그들의 주요 의제설정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도구는 SPSS v23, KrKwic, UCINET 6이다. 연구를 통해 동시대의 실제 현상은 하나이지만 신문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보도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각 신문은 기사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는 의제가 상당히 다르고 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도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 시기 모든 신문에서 재일한인 관련하여 복선 귀환 사건을 공통적으로 의제설정하고 있지만, 요미우리는 다른 신문과 비교하여 귀환 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요미우리는 지문 날인 거부 활동에 관해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기사를 생산했다. 세 개의 신문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아사히는 조선인 학교 폐쇄, 재일한인 관련 네 단체의 해체 명령, 재일한인의 국적 문제 등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 심도 있게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니치는 유독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기사에서 재일한국인의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였고 북한이 아닌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범 재판, 김대중사건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생산하였다. 동시에 3종의 신문 모두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던 귀환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에 차이가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귀환 사건에서 협정 내용이나 적십자의 역할에 많은 기사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머지 두 신문은 귀환 문제를 둘러싼 민단과 조총련의 갈등, 한국 측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본 논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후 일본내 신문에서 재일한인에 대한 미디어 표상을 탐색적으로 다루었다. 이 분야의 미디어 의제설정 효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적 내용 분석은 향후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Media Representation of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ese Newspapers by Keywords Network Analysis

- Focus on the Top 3 Newspapers in Japan -

Jung, You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 representation of post-war Zainichi Koreans, the Yomiuri, Asahi, and Mainichi newspapers, which were influential in post-war Japanese society. Articles were extracted, and their main agenda setting and the connection center of the keywords used were analyz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tools used in this paper were SPSS v23, KrKwic, and UCINET 6. Although there is only one real phenomenon of the contemporary era, it can be seen that depending on the newspaper, the amount of article production and the agenda that is mainly addressed in the press appear quite different. In other words, each newspaper has quite different agendas that are highlighted through articles,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keywords with strong centra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newspapers during this period set a common agenda for the return to the North Koreans in relation to the Zainichi Koreans, but Yomiuri dealt with the return issue in more depth compared to other newspapers. And Yomiuri also produc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articles regarding the rejection of fingerprinting. Asahi, known as the most progressive of the three newspapers, reported more in-depth articles related to the closure of Korean schools, orders to dismantle four groups related to Zainichi Koreans, and nationality issues of Zainichi Koreans. Lastly, Mainichi used a lot of keywords of 'Jaeilhankookin' instead of the only 'Jaeilchosunin', and reported a lot of articles related to South Korea, not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produced many articles related to the political criminal trial and the Kim Dae-jung issue.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keywords that appeared at the same time for the return issue, which was heavily dealt with in all three newspapers. Yomiuri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r the role of the Red Cross in the return issue, while the other two newspapers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Mindan and Chongryon over the return issue, and opposition from the Korean side. This paper explored the media representation of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ese newspaper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hrough this, the analysis of the qualitative content of the media's agenda setting effect is expected to be addressed in future studies.